

‘포켓몬 고 원정’ 끝? 국내 출시 내달 가닥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Go)’가 전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국내 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여수 거문도에서도 게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저작권 침해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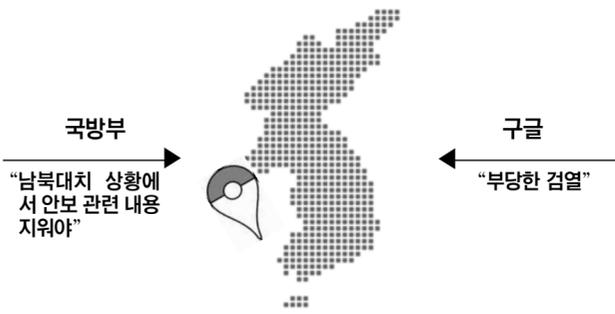
◇포켓몬 고 국내 출시 다음달 초 가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1차 회의를 가졌다”며 “다음달 초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도 반출 신청이란 한국의 정밀지도를 국외로 가져가고 싶다는 뜻이다. 한국은 남북대치라는 상황에 지도반출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다. 구글은 2010년 최초로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실패했고 이어 올해 6월 1일 재신청을 했다.

구글이 지도 반출 허가를 받아 구글맵 등 ‘포켓몬 고’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군 시설 등 안보 관련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등과 구글 사이 견해차가

■한국 정밀지도 반출 관련 국방부·구글 입장차



게임 사용 지도 공급 여부, 정부회의서 결정

비영리 목적 무단 사용도 저작권 소송 대상

여전한 것으로 안다. 2차 회의에서 조율이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법규에서 외국업체가 지도반출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휴일을 빼고 60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신청의 결정시한은 오는 8월 25일까지다.

◇홍보 위한 ‘포켓몬’ 무단사용 자제해

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7일 ‘포켓몬 고’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켓몬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켓몬 고 열풍 이후 저작권상담센터에는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20여 건의 관련 문의·상담이 접수됐다.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 홍보 여부 ▲포켓몬

이미지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에서 홍보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으로 제작해 세워놔도 되는지 등이다.

저작권위는 이에 대해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업홍보는 물론이고 영세 사업장에서 소규모 이용이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라도 저작권 침해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고 열풍 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던 속초시 경우도 포켓몬 업체 측으로부터 저작권료 지급 없이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련 홍보물을 모두 철거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포켓몬스터는 휴대용 게임기용 게임, 애니메이션, 카드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일본의 (주)텐토(주)리치(주)게임프리카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위는 설명했다.

외국 제작물은 현재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886년 채택) 등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다. 베른협약에는 한국이 1996년, 일본이 1899년에 각각 가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공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내달까지 3분 영상물 접수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미래 방송콘텐츠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디어 분야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9회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부산·강원·대전·인천·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다.

본선 경연대회는 오는 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무대에서 열리며 대회 시상식도 같은 달 29일 광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전국 중학교 재학생 및 만 13~18세 청소년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신청서와 3분 이내의 공연영상물

을 제출하면 된다.

본선 경연대회에는 방송조와 공연조로 나뉘어 참가할 수 있으며, 공연조가 공연을 펼치면 방송조가 촬영한 뒤 영상물을 심사하게 된다.

영상제작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기초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선 진출 확정시 각 팀별 스튜디오교육도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대상)과 지도상(광주시장상), 최우수상(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광주시교육감상) 등 본선 진출팀 전체에 총 24개의 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www.comc-gj.or.kr)나 전화(062-650-033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어린이가 포착한 현장뉴스, 궁금하시죠?

월곡아동센터 ‘어린이 뉴스’ 오늘 공개시사회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산구노인복지관에서 월곡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제작한 마을뉴스 ‘귀가 종국 월곡 어린이 뉴스’ 공개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시사회 작품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마을미디어사업 월곡어린이 TV제작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결과물이다. 월곡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고학년 13명이 참여했으며

상영작은 총 3편이다.

초등학생들의 용돈실태를 살펴보고 올바른 용돈사용법을 제시하는 ‘올바른 용돈 사용법’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깨끗한 동네를 원해요’,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이 잘사는 ‘우리 동네 작은 가게’ 등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낸 영상물이다.

문의 062-650-0330.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게임 ‘탑오브탱크’ 카카오 버전 나왔다

노트북 등 기념선물 다양

인터넷세이브(대표 이갑형)는 27일 모바일 게임 ‘탑오브탱크 For Kakao’를 출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출시한 ‘탑오브탱크 For Kakao’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당시 사용하던 탱크로 전장을 누비는 액션게임이다.

전쟁 비즈니스를 둘러싼 ‘발할라’와 ‘엑스루츠’ 간 긴장을 줄거리로, 세계 2차 대전 실제 전장까지 지원한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자동조종(auto control)도 가능하도록 했다.

출시 기념이벤트도 열린다. 게임을 다운받아 지휘관 레벨 15를 달성한 이용자를 추첨해 ‘삼성노트북9 metal’과, 문화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또 탱크 5대를 레벨 45까지 강화한 화면 캡처 사진을 공식홈페이지 남긴 선착순 100명에게는 사오미 고급 보조 배터리를 지급, 게임아이템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갑형 대표는 “탑오브탱크 For Kakao는 3D로 제작된 수많은 탱크를 하나 둘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쉬운 조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게임”이라며 “카카오 버전 출시로 더 많은 유저들이 탑오브탱크 재미를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탑오브탱크 For Kakao’ 출시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tot.webg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美 대학 강단 선다

한국의 첫 우주인 이소연(38·사진)씨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피어스 칼리지 조교수(adjunct professor)로 강단에 선다.

현지 인터넷매체 ‘조이시애틀’에 따르면 UC버클리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친 이씨는 박명래 피어스칼리지 국제교육처장 주선으로 조교수에 임용돼 가을학기부터 물리학을 강의한다.

그는 이날 피어스 칼리지에서 연수하는 부산 소재 동주대학교 코리아폴리텍 학생 55명에게 특강을 했고, 앞서 5일에는 시애틀을 방문한 상명대 글로벌 연수단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의했다.

광주 출신 이씨는 2006년 4월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을 통해 3만6000여 경쟁자를 뚫고 고산 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고산씨가 훈련과정 규정위반으로 탈락하면서 2008년 4월 8일 한국인 최초로 러시아 소유즈 로켓을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해 10일간 머물며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전 세계에서 475번째, 여성으로는 49번째 우주인이 된 그는 2012년 항공우주연구원을 휴직하고 돌연 미국에 유학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여성 패셔니 ‘코스모폴리탄’과 인터뷰에서 “한국을 떠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한국의) 우주인 사업이 종료됐으므로 내가 다음 커리어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13년 시애틀의 안과의사와 결혼한 그는 MBA 과정을 마친 이듬해 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했으며 지난해 자신의 경험담을 쓴 ‘열한 번째 도끼질’을 펴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 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